

2016

경기도우수전통 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Gyeonggi-do Cultural Center

2016

경기도우수전통 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C ontents

2016

경기도우수전통 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 지방문화원은

각 지역의 전통, 민속, 문화 보존의 산실로써

경기도의 특성을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06
운영규칙	11
참여문화원 현황 및 추진 실적	13
운영 평가	56
언론보도현황	59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명 :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5. ~ 12
- 사업 비 : 40,000천원(도비 40,000, 자부담 등 0)
- 지원대상 : 2016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상위 입상한 10개 지역
(지역명 : 용인, 파주, 부천, 안성, 성남, 안산, 오산, 구리, 양주, 화성)
- 지원규모 : 40,000천원 (10개사업)
-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 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0개 지역문화원
- 후 원 :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 지원 근거

-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운영규정

㉢ 추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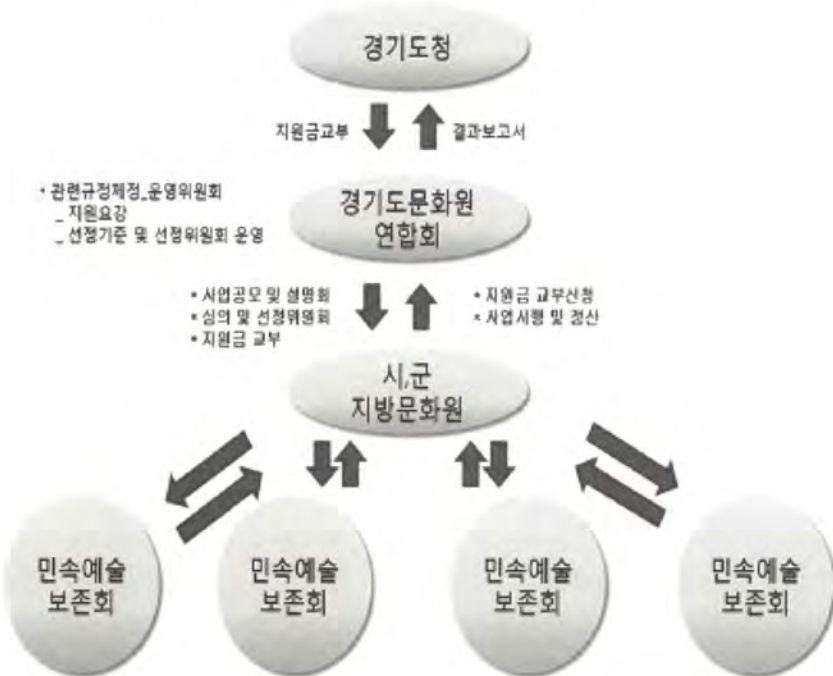
- 전통 민속 보존을 위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민속보존단체 중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여 전통 민속예술을 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철저한 사업평가와 사후관리로 책임성 제고(전년도 사업성과와 연계지원)
 - 중복교부 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 체계적 관리
- 지역문화원을 통해 단체선정 및 시행, 정산토록 함
- 전년도 대회 입상작품 우선 지원.
단, 해당 지역 민속보존단체 선정은 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사업추진체계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 추진체계



◎지원절차



II 지원사업 검토기준

◎지원범위 결정

- 자본적 경비는 지원제외
 - 편중지원 방지 및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선정을 위해사업별 3,600천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의 적격성

- 설립목적 및 근거, 성격 등 지원 대상 요건 적정여부
-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파급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지원내용

- 공연비, 경연대회 참가지원비, 정기연습비, 기타 운영관련 경비 지원

◎사업평가 결과반영

- 사업성과 부진 사업은 다음연도 지원 제한
 - 지원사업 선정 후 경기도의 승인 없이 경비의 배분 및 사업내용을 변경
 -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경우, 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 등 허위보고, 자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
 - 사업계획 대비 성과부진 사업, 성과분석표 미제출한 경우 지원제외
- 3년 이상 지원된 사업과 기 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시 미지원
 - 단, 자체성과분석 결과, 성과가 탁월하고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와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반영

◎지원계획 공고 : 2016. 4. 11.(월)

- 해당문화원에 E-Mail로 공지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6. 4. 19.(화) 11:00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 참석대상 : 해당지역문화원 담당자
- 주요내용 : 지원계획, 신청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 4. 11.(월) ~ 2016. 4. 25.(월)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E-Mail접수 (인트라넷을 통한 접수만 허용)
- 신청서류 : 사업비 지원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단체 소개서(별첨)

◎선정 및 교부

- 선정기간 : 2016년 5월 2주 중

◎지원결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비 교부 : 도연합회 사무처가 지원결정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 등을 문화원로부터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자금 교부결정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도연합회 사무처에「실적보고서」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 1]
- 도사무처는 사업비 정산 및 자체성과평가 실시
 - 평가기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고 필요 시 현지 조사 실시
 - 적합 판단 시 정산결과 확정 후 통지,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납 등 필요한 조치

III 사업의 성과평가

◎수행상황 점검

- 주 관 : 도연합회
- 해당문화원은 도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Ⅳ 동사업 추진 경과

◎ 개최 근거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5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제정할 것을 정함
- 소위원회의 구성은 2015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회장의 권한으로 위임됨

◎ 협의 주요 내용

- 지원사업의 몇 가지 원칙
 - 가. 문화원을 통한 공모신청과 문화원으로서의 보조금 지급
 - 지방문화원의 지역민속예술보존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지방민속예술보존회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공고화
 - 나. 경기도민속예술제 수상의 형평성 제고
 - 1) 대상 및 최우수상에 편중된 지원 규모 분산
 - 2) 동일 작품 지원기간 3년 원칙

1. '15년 지원 현황

-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1,2위 수상팀에 대해 매년 보존사업비 지원
 - 19개시군 47개 종목 지원, 종목당 지원액 571만원/년간
 - '15년사업비 : 286,327천원(도비 80,500천원, 시군비 205,827천원)
- 도 및 시군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 단체가 시군에 사업비 신청하면 교부
 - 공연비, 경연대회 참가지원비, 정기연습비, 기타 운영관련 경비 지원

2. 문 제 점

- 보조금 지원단체가 매년 2개씩(1,2위 수상팀) 증가함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 신청만 하면 사업비가 지원 되다보니 주관운영단체의 전승보존 활동을 위한 노력이 미비하고 대내외 활동 등 추진성과 미약
- 한번 우승하면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민속예술제 과열화

3. 개선방안

- 대내외 공연 등 전승활동 의지가 있는 단체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발 지원
 - 도민속예술제 등 전통사업 추진에 역량이 있는 도문화원 연합회에 지원 추진
 - 민간경상보조사업인「도단위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내의 사업으로 운영 (사업비 4천만원 내외 / 10개사업 내외) - 세부추진방법 별도 협의
- 시군에서는 개별지원이 필요한 우수종목에 대해 자율 결정자체사업으로 추진

2016

경기도우수전통 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운 영 규 정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운영규정

제정 : 2015년 2월 10일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선정 팀은 다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관처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운영지침에 적극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우수전통민속보존 지원사업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본 지원사업의 지원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지역을 제외한 상위 10개 지역(문화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단체나 예산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2. 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동일작품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3조 (지원방법) ①지원은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이 1개 단체 선정하여 도연합회에 접수하며, 선정된 1개 문화원 1개 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지방문화원으로 교부한다.

② 교부금은 공연비, 경연대회 참가지원비, 정기연습비, 기타운영관련 경비 등으로 지원되며 관련 세부 지침은 사업 공모 시 별도 첨부한다.

제4조 (지원 유보 및 취소) 선정된 단체에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 유보 및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의무) 지원 받은 문화원은 사업 종료 시 정산과 성과보고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본 사업의 진행상 또는 선정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2015. 2. 10.)

(시행일)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인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16

경기도우수전통 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참여문화원 현황과 추진 실적

용인문화원	문화원	화원	원
파주문화원	천문문화원	화원	원
부안문화원	성남문화원	화원	원
안성문화원	안산문화원	화원	원
안양문화원	구리문화원	화원	원
	양주문화원	화원	원
	성남문화원	화원	원



1. 용인문화원

단체명

포곡민속보존회

유 래

용인 이씨는 용인시 수지 지역에 용인 이씨의 대부분인 참판공파가 풍덕천 일대에 집단을 이루고 있고, 포곡읍의 용인 이씨는 수사공파로 주로 유운리와 신원리에 동족촌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번 전통상여놀이 재현은 포곡읍에 세거해온 수사공파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장례행렬이다.

발굴경위

‘사가용인’의 의미를 살리는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지역문화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오다가 용인 이씨 문중에서 장례행렬이 전해져왔다는 증언을 통해 사료조사 및 고증으로 본 행렬을 재현하게 되었다.

특 징

용인 이씨 장례행렬을 통해 장례문화 풍습을 재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놀이로써 참가 인원이 수백 명에 이르나 대회 참가 기준에 맞춰 80명으로 축소하였다.

구 성

방상씨, 운삽·불삽, 명정, 만장, 명여, 공포, 상여, 상부, 북채기, 조객, 악사

진행과정

발인-노제-징검다리-논두렁길-외나무다리-오르막-내리막-우물

I. 사업개요

단체명	용인문화원		
사업명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 05. ~ 12.	사업장소	용인문화원
사업비	총 3,600천원	보조금	3,600천원 (100%)
		자부담	천원 (%)
		기타	천원 (%)
사업목적	<p>용인 포곡읍에 전해 내려오는 장례행렬 재현용인이씨 후손들에게 전해오는 장례행렬을 재현하여 용인 고유의 민속놀이로 발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장례문화 풍습을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 마련</p>		
사업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축제 견학을 통해 포곡민속보존회 자체 역량 강화 ○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상여놀이 공연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우수민속축제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6. 6.10(금) 10:00~18:00 - 장 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행사장 ○ 제27회 처인성문화제 용인시민속예술축제 상여놀이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6.10. 7(금) 11:00~17:00 - 장 소 : 동백호수공원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요인의 민속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대 시민 화합의 장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6월 11일	국내우수민속축제견학 장 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행사장	6월 10일	국내우수민속축제견학 장 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행사장
9월 30일	시민의날 주간 상여놀이공연 장 소 : 용인종합운동장	10월 7일	처인성문화제 상여놀이공연 장 소 : 동백호수공원

III. 사업추진성과

- 국내우수민속축제견학
 - 일 시 : 2016. 6.10(금) 10:00~16:00
 - 장 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행사장
 - 견학코스 : 관노가면극 발표회 및 퍼레이드, 산신굿, 손님굿, 천왕굿
- 처인성문화제 용인민속예술축제
 - 일 시 : 2016.10. 7(금) 11:00~17:00
 - 장 소 : 동백호수공원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국내우수축제견학을 통해 다양한 민속예술공연 체험
-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2. 파주문화원

단체명

전통예술단 '호연'

유 래

파주 교하의 지역은 이 지역에 세거하고 있는 파평 윤씨가 이조 세조대왕 이후 국구부원군 세 분(파평 윤심, 파원 윤여필, 파산 윤지임), 공신부원군 세 분(파천 윤사훈, 파릉 윤보서원, 윤원형)이 성장한 곳이며, 또 한 그의 자손들이 높은 벼슬길에 올라 그 세도가 하늘에 닿아 당시 그 기세가 날로 왕성 하여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기세울 지역은 파평 윤씨의 집성촌으로 불리 울 정도로 조선 초에 그 가옥수가 1000여 가구 이상이 었다.

현재 생존해 계시는 파평 윤씨 정종공파 36대손 윤시덕(1931년생, 고종당시 만80세)씨에 의하면, 당시 기세울(현 와동리)의 안말(내촌)은 파평 윤씨 집성촌(홍씨는 3가구뿐 99%가 윤씨가분)을 이룰 정도로 파평 윤씨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한다. 고려 당시 신의주에서부터 부산(3천리=약1200Km)까지 10리(약4Km)에 한그루씩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이 중 파주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나무(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713번지 위치)에서부터 현 310번 도로가 있는 곳까지 기와집이 연속으로 있어 비가 오는 날엔 그 처마 밑으로만 걸어 가도 비를 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와집을 가진 파평윤씨 양반들의 기와집이 장관을 이루 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개성 상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의 왕래가 많았으며, 이 상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재주꾼들도 많았다고 한다.

발굴경위

파주의 교하지역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합수지점으로 넓은 평 야와 곡창지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두레가 성행했던 지역이다. 특히 파주 교하의 기세울 지역은 파평 윤씨 집성촌을 이루었던 지역으로 마을의 화합과 한 해 농사의 풍년, 마을사람들의 안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기 위하여 농악놀이가 행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6.25전쟁(1950년)을 기점으로 기세울 지역을 비롯한 교하지역의 농악이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으며,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사진자료나 문서 등 역사적 근거 들 또한 모두 훼손된 상태이다.

이에 파주농악보존회의 회장인 조영현과 현재 (사)한국국악협회 농악분과 위원장직을 맡 고 있는 정철기는 파주 기세울 농악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에 의해 파주 기 세울 농악을 발굴하게 되었다. 파주 기세울 농악은 제15회와 제1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였던 문산제일고등학교의 파주농악 작품을 바탕으로 파평 윤씨 정 종공파 36대손인 윤시덕(1931년생, 만80세)씨를 비롯하여 김명기, 권대현, 박성길의 고증 을 받아 지도위원인 정철기와 함께 파주 기세울 농악의 역사적 근거와 파주지역의 농악에서 만 행하여 지는 가락과 진법에 대하여 발굴 복원하게 되었다.

특 징

과주농악은 중부권에 속하는 전형적인 농악놀이로, 지역 토착민들과 함께 전문재주꾼(전문 예인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기지역과 황해도지역을 아우르는 한강 이북지역의 농악놀이이다.

과주 농악은 다양한 장르의 놀이들을 복합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그 중 쇠가락과 소고쟁이들의 채상놀음이 여타 농악대들과는 달리 화려하다는 점에서 놀이 평가할만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아랫지역의 놀음들은 발버슴새가 화려한 반면 과주 농악은 소고쟁이들의 상모놀음이 화려하며, 악기의 가락 또한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다. 쇠쟁이 뒤로 제급(바라)이 반드시 따르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소고쟁이들의 채상(상모) 놀음이 화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악대의 상쇠가 풀어가는 가락 또한 어느 지역의 가락보다도 변화무쌍하며 이는 민속학적 측면으로 볼 때, 서울새남굿, 경기도당굿, 황해도풍어굿 등에서 그 가락의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과주 농악은 단순한 동네 농악이 아니고, 그 기능이 매우 뛰어났으며, 개성과 인백 등 황해도 지역의 영향을 받아 늦거리(늦은채), 십자거리, 내는 가락, 인사굿 등이 타 지역의 농악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놀이시기

현재로 정확한 놀이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구 성

쇠-2 바라-1 징-1 장구-4 북-4 소고-7 무동-6 태평소-1
농기-1 단채기-1 용기-1

진행과정

인사굿 - 돌림벽구 - 앞당산 - 오방진(길군악) - 뒷당산(찍찍이, 쾌자춤) - 십자걸이 - 사룡백이 - 좌우치기 - 늦거리 - 밀벽구 - 개인놀이

1. 사업개요

단 체 명	파주문화원		
사 업 명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 5. ~ 12.	사업장소	파주문화원
사 업 비	총 3,600 천원	보 조 금	3,600천원 (100%)
		자 부 담	천원 (%)
		기 타	천원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에 전해 내려오는 풍물놀이의 역사성을 제고하여 그 우수성을 깨닫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풍물놀이를 발굴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킨다. ○ 파주지역 지역민들의 삶이 특색 있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며, 전통음악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사 업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지역 전통놀이 윷다리 풍물놀이 발굴하고 계승 ○ 파주지역 청소년들 에게 전통음악 체험 및 교육 ○ 파주지역 청소년들 에게 전통문화예술을 접해줌으로서 그 흥을 알게 해줌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 파주농악(교하기세울농악) 장려상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문화를 접하게 해주는 역할 ○ 경연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낌 ○ 고품격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문화예술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마당, 다시 찾고 싶은 전통예술의 터전의 필요성을 알게 함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5월	공연작품 구성 악기 배정 홍보물 제작 (리플렛, 현수막, 제작 및 인쇄) 초중고등학교 홍보물 배포 관내 관련 단체 공문 배포 관내 관련 단체 홍보물 배포 관내 관련 단체 인터넷 홍보 명단 및 교육자료 준비 수업시작 (2016년 5월 28일 ~ 2016년 9월 4일 매주 토,일요일)	6월	공연작품 구성 악기 배정 홍보물 제작 (리플렛, 현수막, 제작 및 인쇄) 초중고등학교 홍보물 배포 관내 관련 단체 공문 배포 관내 관련 단체 홍보물 배포 관내 관련 단체 인터넷 홍보 명단 및 교육자료 준비 수업시작 (2016년 6월11일 ~ 2016년9월 20일 매주 토,일요일)	참가자 모집 지연

III. 사업추진성과

전통문화를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서로 다른 환경의 학생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함.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이나 예술활동에 도움이 됨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초등학생들의 선착순 접수로 중· 고등학생들의 참가가 저조하였다.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단기간에 지원되는 사업이라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원액의 문제도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적어도 2회차까지는 지원되어야 연속성을 가지고 준비할수 있다.



3. 부천문화원

단체명

중리풍물놀이

유래

중리풍물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1970년 초까지 옛 중리지역인 장말과 넘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벽구놀이가 일품이었던 풍물놀이이다.

발굴경위

부천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원주민들도 인근 도시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 농악도 서서히 퇴색 되었다. 대성농악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넘말의 '김용문'씨를 통해 예전에 중리풍물에 대한 틀을 갖추게 되었다.

특징

경기 옷다리풍물로 가락은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르게 쓰며 쇠가락의 가림새가 분명하다. 벽구놀이가 다채롭고 어린 무동들이 주는 깨끼춤과 무동놀이가 있다.

놀이시기

정월초에 집집마다 돌면서 펼쳤던 지신밟기와 칠월백중놀이 때 대동굿은 풍년을 기원하는 격식을 갖췄다고 한다.

구성

농기수, 영기수, 새납, 쇠잡이, 징수, 장구잡이, 북수, 소고잡이, 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과정

풍물놀이의 진행은 열립굿, 인사굿, 돌림벽구, 당산벌림, 오방진, 사통배기, 좌우치기, 양산다드래기, 연풍대, 개인놀이로 진행된다.

1. 사업개요

단체명	부천문화원		
사업명	부천국제만화축제와 함께하는 중리풍물놀이 한마당		
사업기간	2016. 7. 1 ~ 8. 10.	사업장소	한옥체험마을
사업비	총 3,605 천원	보조금	3,600천원 (100%)
		자부담	5천원 (%)
		기타	천원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의 옛 중리지역인 장말과 넘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풍물놀이인 중리풍물놀이를 부천국제만화축제기간 중에 시연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함. 		
사업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국제만화축제기간에 옷다리풍물인 중리풍물놀이 시연 ○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찾은 시민과 방문객, 일반대중에게 부천의 풍물놀이인 중리풍물놀이 시연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국제만화축제에 경기 옷다리풍물인 중리풍물놀이 시연 ○ 중리풍물놀이를 공연화하여 시민과 방문객에게 전통문화의 접근성 확보 ○ 지역의 역사를 소재로 담은 작품 등을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역사와 접목한 전통의 가치 공유기회 확대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의 공연을 부천국제만화축제기간에 개최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다 널리 알리고, 민속보존단체의 전승 의식 고취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7월 15일 ~ 7월 29일	○ 부천국제만화축제와 함께하는 중리풍물놀이 한마당 홍보	7월 15일 ~ 8월 29일	○ 한옥체험마을 지정게시대 현수막 제작 및 게시 ○ 홍보전단지 제작 및 배포 ○ 문화원 홈페이지 홍보 게시 ○ 부천국제만화축제 홍보용 타임테이블에 게시
7월 29일	○ 부천국제만화축제와 함께하는 중리풍물놀이 한마당 실행	8월 29일	○ 부천국제만화축제와 함께하는 중리풍물놀이 한마당 공연

III. 사업추진성과

-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의 공연을 국제행사인 부천국제만화축제기간중에 개최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다 널리 알리고, 민속보존단체의 전승 의식 고취
-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정신적 휴식공간 제공 및 외부관람객 유치에 기여
-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국제행사인 부천국제만화축제를 활용하여 시민과 방문객에게 전통문화의 접근용이성 확보
- 경기 옷다리풍물인 중리풍물놀이 시연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체험으로 전통문화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관광진흥에 기여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의 공연을 부천국제만화축제기간에 개최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다 널리 알리고, 민속보존단체의 전승 의식 고취 기회 마련
 - 중리풍물놀이 공연을 통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중요성 부각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부천국제만화축제 행사 동선과 겹쳐 보다 많은 방문객 유입에 불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수전통민속놀이의 보급과 확산 등 전승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 필요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 노력 필요
-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연혁의 보급과 확산 등 전승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 편성 확대가 필요함
-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들에 대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활동단체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확대 필요



4. 안성문화원

단체명

남사당놀이 보존회

유 래

안성 청룡사는 예로부터 사당패들의 근거지로, 1865년 경복궁 중건 시 사당패의 꼭두쇠이던 바우덕이가 지경다지기 소리를 하여 대원군에게 옥관자를 하사 받았다고 전해짐..

발굴경위

- 바우덕이가 경복궁 중수식에서 지경다지기 선소리를 잘하고 춤을 잘췄다는 청룡리 주민들 설화 및 마지막 남사당패 양도일의 1968년 동아일보 인터뷰를 바탕으로
- 1927년(별건곤)기사에 놀이패들이 지경다지기 소리를 했다는 대목에 주목하여 발굴

특 징

- “三角山第一峰에 鳳鶴이 년죽 안전구나. 鳳의 등에 터를 닦고 鶴의 나래에 집을 지니, 둥구재, 萬里재는 靑能이요, 往十里, 駱山은 白虎로다. ~~”
- 이 노래는 경복궁 중건 당시 공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노역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전국의 공연패들을 모집하여 보급한 노래로, 당대 최고의 명창이었던 바우덕이가 불러서 유명해짐

놀이시기

남사당놀이는 봄에서 가을까지 전국을 떠돌며 공연

구 성

- 지경꾼 24명
- 풍물패 22명
- 기수 6명
- 기타 잡역 10
- 바우덕이 외 소리꾼 6명

진행과정

- 지경꾼들이 지경다지기를 할 때 바우덕이는 백이는 소리를 하고, 지경꾼들은 받는 소리를 함
- 이어서 바우덕이는 출타기 공연을 함

1. 사업개요

단체명	안성문화원		
사업명	우수전통민속예술단체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9.1 ~ 2016.10.31	사업장소	안성문화원
사업비	총 3,600 천원	보조금	3,600천원 (100%)
		자부담	천원 (%)
		기타	천원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남사당놀이 청소년에게 전승 ○ 안성남사당 전통가락을 교재화 전승 		
사업 추진방법	전수조교를 강사로 선정하여 강습회 홍보를 하여 일반 수강생을 모집하여 서운중학교 풍물단과 시립남사당 후예들과 함께 교재를 제작하여 각각 2개월간 강습을 통하여 전승		
추진실적	총 38명의 수강생을 연구교재를 바탕으로 2개월간 지도 전승		
사업성과	안성관내 청소년 38명에게 남사당놀이 지도 전승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5월~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교를 중심으로 자료수집 및 교재 제작 ○ 강습회 홍보 	5월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습교재 제작 ○ 프랜카드 10장 거취
9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반 편성 강습운영 	9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반 편성 강습 운영

III. 사업추진성과

- 안성 남사당 놀이를 교재화 하여 전승 도구를 마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강습 전승함.
- 남사당 놀이의 전통 계승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강습회원 모집 광고를 통하여 모집하고 기존 구성되어 있는 팀에 합류시켜 교육지도.
 - 전수조교를 강사로 선정하여 열성을 가지고 지도한 점.
- 설문조사 결과
 - 강습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교육수강이나 지도력에 대해 만족해 하지만 간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예산금액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육장소의 수송이나 교육기자재(국악기)를 빌려쓰게 되고 간식지원에 어려움이 많았음.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안성에는 우수전통민속예술단체가 남사당 보존회 뿐만 아니라 향당무 보존회도 있어 양쪽을 동시 전승 계승할 수 있도록 계획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 책정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봄.

5. 성남문화원

단체명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유 래

‘이무술’은 과거에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 옛 지명으로 현재, 분당구 이매동을 일컫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곧, 이무술 마을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좋은 터를 고른 후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동요입니다. 옛날에는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지을 때, 집터를 고르고 지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할 때, 집을 짓는 동안의 안전과 지은 후에도 영원히 복을 누리기 위해 기원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고사와 덕담을 내용으로 하는 소리를 부르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때, 마을 사람들은 품앗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살려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협동심을 이어왔고, 소리를 통해 신명을 돋우면서 고단함을 덜었던 것입니다.

발굴경위

이무술은 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옛 이름으로서 원래 ‘이무술’이란 자연부락이었다.

300년전 천렵을 즐기던 한 농부가 냇가에서 커다란 고기를 안고 나와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고기는 천 년만에 승천할 이무기로서, 마을 주민들이 죽은 이무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위령 승천제를 지내자 그 자리에 난데없는 매화나무 두 그루가 솟아 그 후부터 이매동으로 불리었다 한다.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도 경기지방의 음률이 반영되고 있는데, 집 터를 닦고, 다지고 집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특히 집 터 다지는 소리가 특색있게 잘 발달되어 전해지고 있었다.

또한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지경다지기)는 1982년 발굴 및 재연하여 1983년 3월 27일 관계기관 및 고층인, 감수, 마을주민과 함께 시연회를 하였고, 1985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1994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997년에는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특 징

집 터 다지기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 마을 사람들이 낮에는 농사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터주신이나 귀신은 밤에 움직인다고 믿어 밤에 행하여야 액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절차로는 집주인이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장만하고, 지경돌과 햇불을 준비해 놓으면 동네사람들이 모여든다.

먼저 고사 술상을 준비하여 동티나지 말고 큰 부자가 되게 빌며, 술을 사방에 뿌리고 동네 사람들은 술을 한 순 배 마시고, 햇불을 켜들고 터를 다지는데, 보통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지경꾼들은 후렴을 한다.

이때의 소리는 고된 작업을 흥에 겨워 힘든 줄 모르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는 건설지향적이고 미풍양속이 듬뿍 담겨있는 것으로, 음율은 서울과 경기일원이 비슷하다. 왜냐하면, 경기도 중심부에 서울이 있고 그 둘레가 모두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집 터 다지는 소리도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불리워졌는데 사대문 안과 밖의 음율은 역력한 차이가 있다. 즉, 서울의 경우에는 서두에 “에이러라”로 시작되는데 비해,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서두가 “에이여라 지경이요”라고 불리워졌다.

놀이시기

- 사손을 분가시키거나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지을 때
- 집터를 고르고 지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할 때

구 성

입장 및 농악놀이 - 성토 - 지경다지기 - 풍년가

진행과정

고사 → 동아줄 꼬는 소리 → 성토(가래질 소리) → 지경다지기
(초지경 - 양산도타령, 중지경 - 방아타령, 중지경 - 잦은 방아타령) → 휘모리 → 뒷풀이

I. 사업개요

단체명	성남문화원		
사업명	2016 찾아가는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사업기간	2016. 6. 9.	사업장소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광장
사업비	총 3,600 천원	보조금	3,600천원 (100%)
		자부담	천원 (%)
		기타	천원 (%)
사업목적	<p>○ 성남시 향토 민속놀이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성남지역이 보존해야 할 중요한 민속놀이로서, 신도시 개발과 함께 사라져 가고 있는 지역의 전통과 민속을 보존·재현함으로써 성남 지역의 문화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p>		
사업 추진방법	<p>○ 구 성 : 입장 및 농악놀이 - 성토 - 지경다지기 - 풍년가 ○ 진행과정 : 동아줄 꼬는 소리 → 성토(가래질 소리) → 지경다지기 (초지경 - 양산도타령, 중지경 - 방아타령, 중지경 - 잣은방아타령) → 휘모리 → 뒤풀이</p>		
추진실적	<p>○ 사업명 :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 일시 : 2016년 6월 9일(목), 17시~ ○ 장소 : 야탑역 광장 ○ 참여인원 : 400명 ○ 주최 : 성남문화원 ○ 주관 :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보존회 ○ 후원 : 경기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사업내용 1. 식전행사 : 길놀이 2. 개회식 : 내빈소개, 인사말, 축사 3.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 동아줄 꼬는 소리, 성토(가래질 소리), 지경다지기 (초지경-양산도 타령, 중지경-방아타령, 중지경-잣은 방아 타령), 풍년가, 휘모리, 뒤풀이</p>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지역의 보존해야 할 중요한 민속으로서, 사라져 가는 지역의 전통과 민속을 기록·보존함으로써 문화 유산적 가치에 대한 효용의 폭을 넓게 하여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 문화 역사를 연구 할 수 있는 자료를 남김. ○ 도민들에게 우리 성남시의 전통 문화유산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 있음. ○ 사라져 가는 성남 전통놀이 문화 계승 보존의 계기를 마련코자 함. ○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을 살아 숨 쉬게 함으로써 선조들의 '두레정신' 즉, 단합과 협동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임.
-------------	---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진 실적
5월 23일 5월 25일 6월 1일	- 실무자(기획단) 회의 - 기본연습 개시 - 홍보물 제작	5월 23일 5월 25일 6월 1일	- 실무자(기획단) 회의 - 기본연습 개시 - 홍보물 제작
6월 3일 6월 7일 6월 8일	- 종합 연습 - 소품 및 의상 제작 - 총괄 연습	6월 3일 6월 7일 6월 8일	- 종합 연습 - 소품 및 의상 제작 - 총괄 연습
6월 9일	- 최종 점검 및 시연	6월 9일	- 최종 점검 및 시연

III. 사업추진성과

- 우리 지역의 보존해야 할 중요한 민속으로서, 사라져 가는 지역의 전통과 민속을 기록·보존함으로써 문화 유산적 가치에 대한 효용의 폭을 넓게 하여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 문화 역사를 연구 할 수 있는 자료를 남김.
- 도민들에게 우리 성남시의 전통 문화유산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을 일깨워 줄 수 있음.

- 사라져 가는 성남 전통놀이 문화 계승 보존의 계기를 마련코자 함.
-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을 살아 숨 쉬게 함으로써 선조들의 '두레정신' 즉, 단합과 협동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임.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우리 지역의 보존해야 할 중요한 민속으로서, 시민들에게 우리 성남시의 전통 문화유산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 줌.
 -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을 살아 숨 쉬게 함으로써 선조들의 '두레정신' 즉, 단합과 협동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임.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고정된 연습장소가 없어 매번 소품이동 및 연습 장소 섭외의 어려움이 있었음.
 - 예산부족으로 출연자들의 연습 기회가 부족함.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연습비 및 행사물품 구입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내년도 예산 반영시 연습비 및 행사물품 구입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6. 안산문화원

단체명

안산둔배미 배치기소리

유 래

조선시대 안산에는 궁중에 지방특산물을 진상했던 사용원문원이 있어 안산바다에서 잡히는 뱀뎡이, 민어, 준치, 새우 등의 해산물을 진상하여 왔으며(동국여지승람, 안산군읍지)

세종때부터는 안산 둔배미마을 근처에 초지양령을 설치하여 크고 작은 전선(戰船)을 주둔시키고 조세, 조운, 해안방위 등의 임무를 수행 하였다(세종실록) 별망성 아래 별망마을(현 열병합발전소)에는 초지진의 별망군(別望軍)들이 주둔하던 망루가 있기도 하였으며 초지진을 보호하던 별망성은 현재 경기도지정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안산의 둔배미포구(둔포, 원포: 현 안산시 초지동 안산신학대학 인근)는 안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선(戰船)과 중선(重船)이 드나들 수 있는 가장 큰 포구로서 어업이 성행하였다.

발굴경위

1987년 안산지역의 풍물가락과 농요를 찾기 위해故박해일(국가중요무형문화재 79호 발탈예능보유자, 안산국악협회회장)선생이 둔배미포구와 성머리포구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을 탐문하여 배치기소리를 채록하고, 능길마을의 농부들에게 농요를 채록하기 시작하여 1989년 향토사학자 故이한기선생과 함께 배치기소리에 대한 원형을 정리하여 전래가 끊긴지 40여년만에 둔배미놀이를 정립하였다. 이 후 1989년 제6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였고(종합우수상) 1990년 안산둔배미놀이보존회가 구성되었으며 1991년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이 후 매년 안산시의 문화예술행사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특 징

안산둔배미배치기소리는 안산의 옛 둔배미포구의 어부들이 어로작업을 하며 부르던 배치기소리, 바디질소리, 서낭당고사 풍물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구성된 옛 둔배미포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대동놀이 이다.

특히 둔배미 배치기소리는 황해도 배치기와는 메김소리와 발음소리가 가락면에서 구분되며 경기도지역에서 유일하게 보존 전승되고 있는 경기배치기소리이다.

구성 및 진행

1) 성황당 고사(서낭제)

- ① 선주가 제관이 되어 당집에 재물을 차린다
- ② 선주가 먼저 잔을 올리고 이어 도사공이 선원들을 대표하여 잔을 올린다.
- ③ 도사공은 선주가 내어주는 소지를 받아 소지를 올린다
- ④ 선주는 도사공에게 봉축을 건네준다
- ⑤ 사공들은 서낭당 산신기와 입장군기, 백기를 제각기 받아 들고 배치기소리를 하며 어선에 오른다

2) 길놀이(배치기소리)

- ① 어부들의 배치기행진에 농부들과 아낙들이 화답하며 함께 배로 향한다
- ② 용왕제를 모실 떡시루와 음식을 머리에 인 아낙들이 배옆에 이르러 춤을 추고 어부들이 승선한다

3) 용왕제와 선상배치기소리

- ① 어부들이 배에 기를 꼽고 용왕제를 모신다
- ② 배가 출항하며 어부들이 배치기소리를 하고 아낙들과 농부들이 같이 소리를 받는다
- ③ 떠나는 배를 보며 아낙들과 어부들이 축원을 드린다.

4) 어부들의 행선 및 어로작업(선상배치기)

- ① 어부들이 배를 지어 바다로 나간다.
- ② 용왕제를 모셨던 술과 음식을 모두 바다에 뿌린다

5) 만선귀향(바디질소리)

- ① 그물 카득 고기가 잡히면 바디로 퍼올리며 바디질소리를 한다.
- ② 만선 오색기를 올리고 백포장 둘러치고 배치기소리를 하며 어선이 귀향한다

6) 대동축제

- ① 둔배미포구에 배가 도착하면 배치기소리와 풍물소리가 어울리며 축제의 장이 선다
- ② 동리아낙들이 고기를 받기위해 그릇을 이고 배로 모여든다
- ③ 어부들과 아낙들은 고기를 퍼 나르고 선주부인은 술동이를 이고 나와어부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 ④ 배에서 내린 어부들과 아낙들과 농부들이 함께 어우러져 풍물 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1. 사업개요

단체명	안산문화원		
사업명	경기도 우수민속예술단체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 6. ~ 2016. 12.	사업장소	안산문화원
사업비	총 3,600 천원	보조금	3,600천원 (100%)
		자부담	천원 (%)
		기타	천원 (%)
사업목적	○ 안산지역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을 보존·전승 활성화 지원		
사업추진방법	○ 안산우수전통민속놀이 보존회 “둔배미놀이 보존회” 의상 지원		
추진실적	○ 치마 및 바지 저고리, 조끼 및 흰 머리띠 등 안산지역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인 “둔배미놀이” 에 필요한 의상 구입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4월 ~ 9월	-안산우수전통민속놀이 '둔배미놀이 보존회' 둔배미놀이 연습 진행	4월 ~ 9월	제20회 성호문화제 공연 2016.5.28~5.29	
10월	-안산우수전통민속놀이 '둔배미놀이 보존회' 필요의상 내역 파악	10월	-안산우수전통민속놀이 '둔배미놀이 보존회' 필요의상 내역 파악	
11월 29일	-안산우수전통민속놀이 '둔배미놀이 보존회' 의상 구매	11월 29일	-안산우수전통민속놀이 '둔배미놀이 보존회'의상 구매	

III. 사업추진성과

- 안산지역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유도
- 안산둔배미놀이 보존회 내부 만족도 및 사기 증진
- 젊은 층에게 전수함으로써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안산둔배미놀이 보존회 회원들이 지원받고 싶은 분야를 사전조사 한 내용을 반영하여 그에 따라 둔배미놀이 활동에 필요한 의상을 구입함.
- 회원별 필요한 의상내역을 조사한 후 여러 매장을 알아 본 결과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의상을 구입할 수 있었음.
- 수년간 착용하던 의상을 대체할 새 의상을 구입하여 회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임.



7. 오산문화원

단체명

선소리산타령 보존회

유 래

고려조가 지나고 조선조 초기와 중엽을 거치는 동안에 차차 민간의 음악으로 파생되었다고 전해짐

특 징

선소리산타령 : 산천경계, 사찰, 사물을 표현
송서,삼설기 : 글 읽는 소리
무용(살풀이,탈춤) : 여자의 살아온 한을 표현

놀이시기

달이 밝은 정월 대보름에 1년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축제로 공연

구 성

해설1명, 모갓이1명, 소리꾼8명, 무용2명 등

진행과정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중 “개구리타령”
개구리타령, 살풀이, 미알할미춤, 송서삼설기시연 후 경기민요의 흥겨운 공연으로 끝을 맺음

I. 사업개요

단체명	오산문화원		
사업명	우수전통민속예술단체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 5.~7.	사업장소	(사)대한노인회오산지회 2층교육실
사업비	총 3,600 천원	보조금	3,600천원 (100%)
		자부담	천원 (%)
		기타	천원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체계와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체험학습과 공연을 전개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사업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6년 7월 14일 오전10시~오후12시 ○ 장소 : (사)대한노인회 오산지회 2층교육실 ○ 대상 : 오산시 및 인근지역 어르신 ○ 인원 : 약 300여명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5 : 대한노인회오산지회와 강의 시간 및 공연일정 확정 ○ 2016.5~6 : 출연진 섭외 및 연습 ○ 2016.7.14 : 국가무형문화재 강습 및 무형문화재 시연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체험학습을 통하여 오산시 및 인근지역 어르신들이 국가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바로 알게 되었으며, 어린 시절 보고 들던 우리음악이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음..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5월	-대한노인회와 공연일정 미팅	5월	-대한노인회와 공연일정 미팅	수강생 모집 지연
5월 ~ 7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체험교실 3회	7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체험교실 1회	미팅결과 1회로 일정 변경

III. 사업추진성과

-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전통음악을 전승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상(한복) 조달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조금을 통하여 외로움과 삶의 지친 어르신들께 아름다운 한복을 갖추어 입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시연자, 관객 모두가 우리 전통문화예술로써 한마음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음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우리의 문화가 왜 소중한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 8호 살풀이 춤, 서울무형문화재 제41호 송서를 아주 가까이에서 짧고 흥겹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
 - 어르신들이 좋아 하시며 자주 체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함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간 배정 미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체험학습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음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학생들에게 우리전통문화체험학습을 체계적으로 도입시켜 서양음악을 뛰어넘는 인재발굴에 힘을 써야 함.
- 초,중,고등학교 전통문화체험학습시간 도입 등



B. 구리문화원

단체명

구리 구지농악

유 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은 지형이 평탄하고 산이 완만하며 물이 가까이 있어 예부터 부락이 형성되었고 농사짓기에 적합하였다. 농사 지으면서 힘든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높이고 피로를 덜며 나아가서 협동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농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 농악은 파종과 추수를 축복하고 농가의 평안을 비는 음악으로 발전되었다.

발굴경위

젊은 사람들이 떠난 농촌에서 더 이상 농악을 연주할 사람들이 없고 농사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농악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악보도 없고 기록도 없는 농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발굴하게 되었다.

특 징

갈매동 농악은 주로 농민들이 두레를 조직하여 농사일의 능률을 올리고 협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 가락이 빠르고 경쾌하여 신명나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시기

농경기(김매기, 논매기, 모심기, 추수기) 및 마을 행사

구 성

농기, 영기, (오방기), 호적, 쇠, 징, 장구, 북, 벽구, 무동, 잡색

진행과정

돌림버꾸, 오방진, 마당놀이, 당산벌림, 절구버꾸, 사통백이, 옆치기, 대대옆치기, 짹짹이, 밀버꾸

I. 사업개요

단체명	구리문화원		
사업명	2016년도 경기도우수민속예술단체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4 ~ 2016.12	사업장소	구리문화원
사업비	총 3,600 천원	보조금	3,600천원 (100%)
		자부담	천원 (%)
		기타	천원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시의 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문화의식의 고취시킴 		
사업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문화원 / 구리 구지 농악 회원 20명 참여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6월 ~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연출 : 기획, 가락, 악보, 공연동선 등 - 주1회(수) 강의 및 연습 - 관내 및 타지역 공연참가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예술들이 점점 퇴색화 되어가고 있고 인구별 계층도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세대 간의 양극화 현상을 좁혀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민속예술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세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함.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6월 ~ 11월	○ 공연연출 - 기획, 가락, 악보, 공연동선 등	6월 ~ 11월	○ 공연연출 - 기획, 가락, 악보, 공연동선 등	
	○ 교육 및 연습 - 구리문화원 대연습실 - 매주 수요일 진행		○ 교육 및 연습 - 구리문화원 대연습실 - 매주 수요일 진행	
	○ 공연참가		○ 공연참가 - 2/15 마석상생공단 사회복지수업 발표회 행사 축하공연 - 5/21 세계인의 날 기념식행사 축하공연 - 7/10 남양주평내동 생활협동조합 2주년 행사 축하공연 - 9/24 잠원나루축제 식전 축하공연 - 11/11 구리문화학교 발표회 공연	

III. 사업추진성과

- 공연연출
 - 기획, 가락, 악보, 공연동선 등
- 교육 및 연습
 - 구리문화원 대연습실
 - 매주 수요일 진행
- 공연참가
 - 2/15 마석상생공단 사회복지수업발표회 행사 축하공연
 - 5/21 세계인의 날 기념식행사 축하공연
 - 7/10 남양주 평내동 생활협동조합 2주년 행사 축하공연
 - 9/24 잠원나루축제 식전 축하 공연
 - 11/11 구리문화학교 발표회 공연

- 구리시의 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문화의식을 고취시킴.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구리시의 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문화의식을 고취시킴.
 -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예술들이 점점 퇴색화 되어가고 있고 인구별 계층도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세대 간의 양극화 현상을 좁혀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함.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잊혀져가고 있는 민속예술을 보존해야할 필요성 있음.



9 양주문화원

단체명

양주들노래

유 래

- 양주는 곡창지대가 풍부하여 예로부터 농사가 발달한 지역으로, 논농사를 둘러싸고 일과 관련된 노동요가 매우 발달할 수 있었으며
- 들노래소리를 전하고 있는 1930년대 출생 김병옥·김환익·허영이·황상복·박인병 등으로 볼 때 적어도 1900년대 초반에는 들노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경기도 양주시 토박이 소리꾼의 소리』(2007년 문화관광부 전통 예술 복원 및 시연사업)
- 또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조금씩의 차이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양주들노래와 유사한 소리를 이웃 고장인 파주, 고양, 동두천, 포천 등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양주들노래는 백석읍의 소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광적면과 남면의 토박이 소리가 곁들여져 들노래의 다양성을 결정하였다.

발굴경위

- (1) 양주는 들이 넓고 쌀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여서 예로부터 노래와 놀이가 풍성하게 발달하였다.
- (2) 가멸진 문화적 환경이 다양한 노래를 만들어서 골골이 여러 가지 각양 각색의 소리를 구현했다
- (3) 인심이 순후하고 소리로 문화를 만드는 창조력이 양주 들노래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
- (4) 양주들노래는 백석읍의 소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광적면과 남면의 토박이 소리가 곁들여져 들노래의 다양성을 결정하였다.

특 징

- (1) 양주들노래는 지역적으로 황해도소리와 서울소리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소리가 어울리는 오묘한 소리가 우러나게 된다.
- (2) 수심가토리의 맛과 경토리의 빠대가 혼용된 소리의 면모가 발현되는 점을 만날 수 있으며 소리의 결과 깊이를 만나는 특징이 있다.
- (3) 소박한 논농사와 함께 여러 가지 재미나는 소리와 놀이가 어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놀이시기

모심는 철부터 시작하여 애논파기 (호미로), 두벌논매기 (손으로), 삼동논매기 (손으로) 시기까지 두벌논매기나 삼동논매기때 논매는 소리를 한다.

구 성

(양주들노래의 구성)

소모는소리 - 모찌는소리 - 모심는소리(송촌말 열소리) - 논매는소리 1. 논바닥에 들어서면서 하는소리 2. 긴방아소리 3. 사도소리 4. 꽃방아소리 5. 훨훨이소리 6. 상사소리 7. 새날리는소리 - 8. 마당너구리

진행과정

입장 - 논만들기(가로10m 세로 6m)를 사각으로 만들고 그안에서 모심고 논매는 동작들이 모두 이루어짐) - 논옆 좌.우 양쪽 에 아낙들이 새참준비할 간이부엌 만들 - 소리꾼 무대좌측이나 우측에 풍물팀과 함께 10여명이 고정적으로 경연 - 끝나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퇴장한다.

소품위치 소1마리 논의 좌나.우 배치
용두레 논 측면에 배치

I. 사업개요

단체명	양주들노래보존회																				
사업명	우수민속예술단체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 6. ~ 2016. 9	사업장소	양주들노래보존회(양주시)																		
사업비	총 3,600천원	보조금	3,600천원 (100%)																		
		자부담	천원 (%)																		
		기타	천원 (%)																		
사업목적	○ 양주지역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사업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 양주시 사업내용: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강습 강습대상: 양주들노래 회원 강습기간: 2016.06. ~ 2016.9 강습일시: 매주화요일 오후7시 ~ 오후 9시 강습장소: 양주들노래보존회 강당, 양주문화예술회관 운동장 ○ 사업참여자 - 양주들노래 회원 45명 - 강사: 박정화(1인) 																				
추진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5%;">계획</th> <th style="width: 40%;">달성</th> </tr> </thead> <tbody> <tr> <td>강습인원</td> <td>총45명(남 20명/여 25명)</td> <td>총45명(남 20명/여 25명)</td> </tr> <tr> <td>강습강사</td> <td>총 1명(여 1명)</td> <td>총 1명(여 1명)</td> </tr> <tr> <td>참여장소</td> <td>2곳</td> <td>2곳</td> </tr> <tr> <td>교육횟수</td> <td>20회</td> <td>20회</td> </tr> <tr> <td>총교육시간</td> <td>60시간</td> <td>60시간</td> </tr> </tbody> </table>			구분	계획	달성	강습인원	총45명(남 20명/여 25명)	총45명(남 20명/여 25명)	강습강사	총 1명(여 1명)	총 1명(여 1명)	참여장소	2곳	2곳	교육횟수	20회	20회	총교육시간	60시간	60시간
	구분	계획	달성																		
강습인원	총45명(남 20명/여 25명)	총45명(남 20명/여 25명)																			
강습강사	총 1명(여 1명)	총 1명(여 1명)																			
참여장소	2곳	2곳																			
교육횟수	20회	20회																			
총교육시간	60시간	60시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들노래 정기공연 - 찾아가는문화활동 공연 -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민속상 수상)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모집대비 수료율: 100% -교육참여자 만족도 및 효과: 100%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100% -사업효과: 양주지역의 모심는소리와 논매는 소리를 발굴하고 전승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6월 1일 ~	매주 화요일 강습 오후 7시 ~ 오후 9시 회원 43명 참여 강습내용: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 소리	6월 1일 ~	매주 화요일 강습 오후 7시 ~ 오후 9시 회원 54명 참여 강습내용: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 소리	
9월	양주들노래 정기공연 찾아가는문화활동 공연	9월	양주들노래 정기공연 찾아가는문화활동 공연	
~ 9월 30일	매주 화요일 강습 오후 7시 ~ 오후 9시 회원 45명 참여 강습내용: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 소리	~ 9월 30일	매주 화요일 강습 오후 7시 ~ 오후 9시 회원 45명 참여 강습내용: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 소리	
10월	양주들노래 정기공연 찾아가는문화활동 공연	10월	양주들노래 정기공연 찾아가는문화활동 공연	

III. 사업추진성과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옛 선조들의 농사의 삶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문화가 기계화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의 귀중한 소리를 발굴 재해석하여 공연을 통해 재현
 - 2015년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민속상 수상
- 사업추진 전·후 비교평가
 - 추진 전 :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강습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추진 후 : 이번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강습을 받는 횟수도 늘어나 들노래 회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진행됨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양주지역의 모심는소리와 논매는 소리를 발굴하고 전승
 - 지속적인 강습활동으로 공연준비하는데 있어 자아성취의욕을 높였으며 제2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설문조사 결과 :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없음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양주들노래보존회 활성화 및 양주시 전통소리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일반시민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회원모집을 한다.
(각 읍면동 인터넷 및 현수막, 전단지 등의 홍보)



10. 화성문화원

단체명

화성두레농악

유 래

화성시 지역은 예로부터 일부 해안지역을 제외하고는 벼농사를 주축으로 하는 농업이 생활의 근간이었다. 이 농업노동에 있어서 마을 공동작업인 두레가 서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었고 주로 모심을 때가 아닌 논매기 때였다.

화성시 지역에서 '농악'이라는 명칭보다는 '두레' 혹은 '두레농악'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두레조직이 활성화 되어있고 이 두레조직을 기반으로 공동 작업시 논맴소리, 작업 이동간의 풍물, 마을 대동굿 등이 행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발굴경위

화성 두레굿은 크게 모내기소리와 논맴소리, 이동간의 풍물, 마을 대동굿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내기소리와 논맴소리는 농업노동과 관련한 노동요의 일종으로 농업노동의 구조가 기계화된 현재에는 노래로만 남아서 전해지며, 재현을 통해서만 그 활용을 볼 수 있다.

화성두레농악 관제는 '마을 대동굿'의 공동체적 놀이판의 음악적, 진법적 구성을 기반으로 각 마을의 두레패가 행하였던 공동 농업노동의 재현을 24절기를 기반으로 한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성하였다.

화성지역 권역별로 두레패마다 가락과 진법, 그리고 범고 놀음과 개인놀이 등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경기도 지역의 가락의 특징과 진법의 구성을 따르고 있어서 경기권역의 일부로서 편입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락과 진법구성, 개인놀이 등을 발굴하는 동시에 화성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토박이 가락과 독특한 진법 등도 발굴하여 전체 관제를 구성하였다.

특 징

화성두레농악 관제에 쓰이는 가락은 대체로 경기지역 가락의 특징인 빠르고 경쾌함을 잘 살리고 있다. 특히 쇠가락에서 장식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쇠가락을 채워서 빠르게 연주하여 흥을 더하는 더드레가락(자진모리), 길가락(칠채) 등의 가락이 돋보이며, 자진가락(휘모리)의 '별도밤고 달도밤고'의 연주법은 여타 경기도 지역의 가락과는 사뭇 다르다.

화성두레농악 관제의 진법구성은 구성 상 농사진이 주를 이루며 병농일치굿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개인놀이로는 범고놀이, 버나놀이, 열두발 상모놀이, 무동놀이 등 경기지역 뒷놀음의 기본적인 형태를 따른다.

I. 사업개요

단 체 명	화성문화원		
사 업 명	'2016년 청소년 화성두레농악 육성사업'		
사업기간	2016. 06. ~ 2016. 11.	사업장소	역말문화회관
사 업 비	총 3,600천원	보 조 금	3,600천원 (100%)
		자 부 담	천원 (%)
		기 타	천원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잊혀져가는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 ○ 화성시의 전통문화유산인 화성두레농악을 이끌어갈 인적자원 육성. ○ 청소년 대회 참가 등을 통해 우리시의 문화위상을 높이는 계기 마련. ○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우수성 제고 및 자긍심 고취.. 		
사 업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대상 사업. ○ 화성두레농악 판제에 대한 통일된 교육체계 확보. ○ 교육과정에 따라 학년별, 수준별 지도계획, 강사배치 계획 수립.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6월부터 11월 까지 화성시 관내 재학생인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초급, 중급, 심화과정으로 화성두레농악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및 실기 수업 진행. ○ 화성두레농악의 가락과 진풀이, 상모와 개인놀이 교육 등 각 악기별, 전공분야별 세분화된 교육을 진행.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두레농악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민족 가락의 향수와 흥취를 배워 전통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기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진 실적	사유
6월	- 사물판굿 배우기	6월	- 판굿에 사용되는 기본 및 변형 가락 배우기 (휘모리, 덩덕궁이) - 일사 및 외사 배우기	
7월	- 사물판굿 배우기	7월	- 판굿에 사용되는 기본 및 변형 가락 배우기 (휘모리, 덩덕궁이) - 허튼상 배우기	
8월	- 사물판굿 배우기	8월	- 판굿에 사용되는 기본 및 변형 가락 배우기 (휘모리, 덩덕궁이) - 나비상 배우기	
9월	- 사물판굿 배우기	9월	- 사물판굿 연행하기(기본판제 배우기) - 상모에 필요한 발바치 동작 배우기	
10월	- 사물판굿 배우기	10월	- 사물판굿 연행하기(기본판제 배우기) - 상모에 필요한 발동작 배우기	
11월	- 사물판굿 배우기	11월	- 사물판굿 연행하기(기본판제 배우기) - 상모에 필요한 발동작 배우기	

III. 사업추진성과

- '화성두레농악'을 통한 우리민족 가락의 향수와 흥취를 화성의 청소년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전통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청소년들 스스로 전통문화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심화학습을 통한 기량향상과 자기개발을 실현하고 각종 행사와 대회 참가 등의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대학 관련학과 진학까지 연계되는 진로 개척의 역할 수행.
- 학교 단위의 활동에서 벗어나 동아리 형식의 청소년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 창달 기여.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와 잘된 점
 - 처음 입문하는 초급자가 화성두레농악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는 계기 마련.
 - 중급자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 본인의 수준에 맞고 기량향상에 필요한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연중 지속 가능한 강좌가 아니라서 교육의 단절이 생김.
 - 단발성 강좌 사업이라 인원 모집과 향후 연계에 문제가 있음.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교육기간 확보
 - 향후, 문화원과 연계하여 위탁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계사업 추진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2년에 한번 개최되는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



2016

경기도우수전통 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운 영 평 가



평 가

가. 총평

- 지방문화원이 주관하여 각 지역의 전통민속예술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음.
-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규정에 근거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향후 지속적 지원구조가 마련되었음.
- 경기도민속예술제 수상팀 중 대상과 최우상이 제외된 상위 10개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
- 시·도의 매칭 사업으로의 재 전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네트워크 강화 모색 필요

- 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협력 네트워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나 보다 세심한 네트워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됨
- 지역민속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구조이나, 행정적인 부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원의 기획 역량이 결합된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 지역과 지역 간 민속문화예술 교류 네트워킹 아이템 개발 필요
- 문화원 내 향토문화연구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민속예술에 대한 고증과 발굴을 위한 연구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다. 모니터링과 컨설팅

- 선정된 지역의 문화원과 민속보존단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도연합회 차원의 교육과 컨설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현장의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자료집이 필요함.

라. 개선 및 건의사항

-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 기간 연장 필요
- 연습비용 및 지원금 확대가 된다면 보존단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됨

2016

경기도우수전통 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언론보도자료




오산문화원

미디어투데이
mediatoday

www.mediatoday.com

오산시, "제2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성대히 끝내

기사입력시간 : 2015.10.06 (20:04:06) 반경일 기자



○ 20일 경기도 오산문화원 주최로 있는 16회~19회 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경기도 우수단체 선정 시상식에서 오산문화원 민속보존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경기 오산시는 경기도 민속문화의 원형을 확인하는 자리인 '제2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오산 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 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오산문화원이 주관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오산시 오산외미거북전놀이, 과천시 선소리산타령, 부천 석촌노기고두미리 등 각 시·군을 대표하는 30개 민속예술단이 무대에 올라 경연을 펼쳤다.

경기 가수별로 대상 1팀을 비롯해 총 12개 팀에게 상이 수여된 이번 대회에서는 수원시 수원무량담이 실공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이천시 봉술다리기팀, 우수상은 김주영 흥인팀, 예술상은 성남·연산·오산팀, 민속상은 화성·양주 구김당 팀이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수원시 수원무량담과 최우수상을 차지한 이천시 봉술다리기팀은 2016년도에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경하게 된다.

용인문화원

민태라기

용인시민신문

HOMELINK 뉴스 & 지역

장례행렬 재현 용인 포곡읍 상어놀이 경기도민속예술제 우수상 수상

포곡민속보존회 참가

의 불출재 기자 2015.10.06 16:37



용인 포곡민속보존회는 포곡에서 전해 내려오는 장례행렬을 재현했다.

포곡읍에 전해 내려오는 장례행렬을 재현한 포곡읍 상어놀이가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4 2015년 6월 1일 월요일

안산저널

역사문화도시 안산시, 제19회 성호문화제 개최

이덕선생 송모제, 둔매미 놀이, 삼두회 체험, 민속놀이와 민속공연 등 소중한 전통민속문화를 되찾는 계기



안산시(시장 재종길)는 지난 29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성호공원 일대에서 안산문화원(원장 김봉식) 주관으로 제19회 성호문화제를 개최했다.

성호문화제는 안산시의 지반인 성호 미역선생의 정신과 학문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郷심을 길러줄 뿐 아니라, 안산시가 전민의 역사를 가진 품에 있는 역사문화도시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성호문화제는 이덕선생 송모제, 삼두회 체험마당(장다루시루 돌추기, 매추만들기, 두부질감기, 인절미만들기), 성호백일장, 성호사랑대회, 신태권등불 및 다양한 전통민속놀이와 예술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29일 이덕선생 사당에서 개최된 성호 이덕선생 송모제는 초빙관으로 재종길 안

산시장을 비롯한 13명의 재관으로 구성되어 진파례(眞拂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응축례(敬祝禮), 절민무(絶民舞), 풍요례(風豊禮) 순서로 진행됐으며, 어주이씨 종친회에서도 다수 참여하여 안산시에 감시함을 표시했다.

또한 28일 개최된 성호사랑대회는 유적 부부터, 고교생까지 우리 전통민속놀이와 삼두회 체험마당 그리기를 주제로 참여했으며, 성호공원 숲속에서 삼상으로 가족단위로 모여 참여하는 모습은 기쁨의 달 오월애 어울리는 아늑담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록 신청한 바 있는 안산시 고유 민속놀이 '둔매미 놀이'와 '달미 풍물놀이' 시연, 성호 사랑 백일 전시회, 사리제 카고 있는 우리문

화·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 판소리와 대동놀이 등 다양한 전통예술공연 등으로 2만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재종길 안산시장은 "일성을 청성촌(淸井村)에 비추면서 신태권선생의 뜻과 성호 이덕선생은 후손들에게 귀감이요, 우리 안산시의 큰 자랑"이라며 "이번 성호문화제를 통해 77만 안산시민 모두가 애郷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행사를 주최·주관한 안산시와 안산문화원은 내년 오월에도 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수무 번째 성호문화제를 개최하여 안산시가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임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장명진기자/asm3114@daum.net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최영주, 진숙

디자인/제작 비타민 큐

발행일 2016년 12월31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화 031)239-1020 팩스 031)239-3785

홈페이지 www.kccfgg.or.kr

2016

**경기도우수전통
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